

1. 시작하기 앞서서

인수인계서를 쓰기 전, 공연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신 36명의 공연진과 많은 극회인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혼자서는 하지 못했을 여러 순간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공연을 올리기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공연 연출하는 일은 다른 파트의 공연진으로서 공연에 참가하는 것의 몇 배 이상의 힘과 노력이 듭니다. 여러 이유로 인해 자신이 생각했던 방향과 살짝 다르게 진행해야만 하는 경우도 생기고, 이때 공연 전체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우들의 연기적인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대 연출과 연기 외적인 부분도 함께 바라봐야만 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그리는 그림이 확실하다면 자신있게 연출을 맡아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무언가를 연출하는 경험은 대학 생활 중 정말 소중한 기회입니다. 저도 연출이 하고 싶어서 극회에 들어왔고, 마침내 4년 만에 소망을 이뤘습니다.

이 인수인계서를 찾아보고 있을 후배께서는 지난 몇 년간 공연에 캐스트와 스태프로서 많은 것을 경험한 뒤, 연출로서 새로운 공연을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지난 공연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적은 이 인수인계서가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작품 결정

작품을 결정하는 데 있어 캐스트 필요 인원과 그 성비, 분량, 그리고 재미를 고려했습니다.

많은 인원이 캐스트로 합류한다면 그 인원을 연출과 조연출 두 명이 한 번에 관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인원이 계속 장면에 나오는 것이 아닐 것이기에, 장면 연습 시 장면에 나오지 않는 캐스트들이 연습실에서 대본과 남의 연기만 하염없이 바라보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캐스트 연습 시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캐스트 한명 한명을 케어할 수 있겠다고 확신이 드는 인원이 몇 명 정도일지 가능하면 됩니다.

또한 대본 내 등장인물의 성비도 고려해야할 요소입니다. 캐스트 지원자 중 남자와 여자 인원을 각각 파악한 뒤 대본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색은 여러 이유로 많이 비추천합니다.

분량도 중요합니다. 1시간보다 짧거나, 2시간 반이 넘어가는 분량은 조금 곤란합니다. 사실 중앙도서관이나 서점에서 찾아볼 수 있는 대다수의 ‘희곡집’, ‘대본집’의 작품들은 대부분 적절한 분량을 가

지고 있습니다.

물론 작품이 연출 본인이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재밌기도 해야 합니다. 그 누구보다 작품의 대본을 많이 읽고 분석하게 될 텐데, 작품에 재미를 느끼거나 괜찮아야만 연출이 애정을 갖고 공연을 준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등장인물 수가 적절하고 분량도 괜찮으면서 연출 취향에 맞는 극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저도 원래 준비하려던 작품이 캐스트 필요 인원이 10명이 나와서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작품이 내가 원했던 스토리와 재미를 갖고 있구나'보다는 '오 이 정도면 연습할 수 있겠다'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정기대공연은 연케와 스태프 모두가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연이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작품의 방향성이 내가 생각하는 공연의 모습과 완전히 반대가 아니라면, 80% 정도 마음에 드는데 다른 선택지가 없다면, 그 작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번 공연을 준비하면서, 위 조건에 맞는 작품으로 8명이 나오는 <지평선 너머>와 4명이 나오는 <친절한 식구들> 두 작품을 정해놨습니다. 8명보다는 4명과 공연을 올리는 것이 더 원활하다고 봤고, 더군다나 당시 캐스트 지원자가 8명보다 적은 상황이었기에 자연히 <친절한 식구들>을 선택했습니다. <친절한 식구들>이 100% 제 취향에 맞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위 조건들 대부분을 충족한 대본이었기에 공연으로 올리기로 결정하고 준비했습니다.

공연으로 올리고자 하는 작품의 저작권을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몇 년 전에는 이런 문제에 심각하게 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출판사나 작가 측에서 걸고 넘어질 경우 굉장히 곤란할 수 있으니 사전에 (약 1-2개월 전) 출판사나 작가에게 허가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 공연의 경우 출판사에 연락한 뒤 작가와 개인 합의를 거치라는 답변을 받았고, 작가님의 이메일과 연락처를 통해 비전공자 동아리에서 여는 작은 비영리 공연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려 각색 및 공연에 대한 허가를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극회 공연이 무료공연 체제로 이어질지는 모르겠으나, 작가나 출판사 쪽에 동아리에서 여는 비영리 공연이라는 사실을 어필하면 허가가 쉬워지는 듯 합니다. + 작품에 따라 요구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외국 1910년대 작품인 <지평선 너머>를 허가받으려고 할 때는 출판사와 번역가 측에 공연 기획서 따위를 전달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대본을 찾는데 도움이 됐던 전자책 한 권 링크 남겨놓습니다. <http://aladin.kr/p/XfMcN>

3. 공연진 구성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64기 회장단과 만남을 가졌고, 다가오는 종강총회에서 연출에 지원하겠다는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기획팀장을 맡게 될 회장과 앞으로 만들 공연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렸습니다.

키스탑은 기획팀장을 통해 각 팀의 장을 맡겠다는 의사가 있다고 전달받은 63, 64기 후배들에게 직접 연락해 종강총회 1개월 전에 확정지었습니다. 다행히도 무대, 의소분, 음향, 조명 분야에서 능력있는 좋은 후배들의 많은 도움으로 일찍 키스탑진을 확정지을 수 있었습니다. 공연을 올려야 하는데 동기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면 후배 기수와 공연을 올려야 하는데, 후배 기수와 친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전 공연에 공연진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했다면 자신이 이끌 공연 참여를 독려하고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극회 내 행사에 자주 참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연출 섭외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제가 캐스트나 연출진으로서 참여한 공연이 공연 기준 2년 전 일이었기에, 아무래도 직전 공연에 캐스트로 참여했던 공연진을 조연출에 적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조연출을 물색하던 중, 125회 공연의 캐스트였던 64기 김현승 후배가 조연출을 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본인의 의사가 있는 이상 공연 준비에 긍정적인 영향이 많을 것이라 생각하고, 조연출로 발탁했습니다. 그 결과 확실히 캐스트 감각이 아직 남아있던 후배가 있는 것이 트레이닝, 장면 연습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조연출을 구할 때에는 캐스트 경험 유무를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친절한 식구들〉의 캐스트 필요 인원은 남자 2, 여자 2명이었습니다. 남자 캐스트 지원자는 2명인 관계로 바로 확정했지만, 여자 캐스트 지원자는 5명인 상황이었습니다. 오디션은 볼 수 없기에 일정 조율 관련 면담을 사당에서 1:1로 진행했습니다. 여행 일정이나 알바 고정 일정이 있는지 물어보고, 캐스트 관련 경험이 있는지, 캐스트를 하지 못한다면 갈 분야가 있을지 물어봤습니다. 당초 계획은 이정도만 질문한 뒤 캐스트 연습일정에 100% 참여할 수 있는 지원자만 선발하는 것이었으나, 100% 참여 가능한 지원자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 중 지원 순서가 빨랐고 연습 진행 중 변수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지원자를 선발했습니다. 물론 일정을 물어보고 조율해 보는 것이 면담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지만, 캐스트를 하고 싶은 이유나 자기만의 작은 각오 같은 것을 물어봤다면 더욱 캐스트 선택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두 달간 같이 연습을 진행해야만 하는 사람이기에, 더욱 신중을 기해 선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캐스트 선발의 권한은 연출에게 있습니다.

4. 캐스트 연습

시파티 당일부터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사전에 시파티 공지만 하고 당일에 연습을 한다는 사실을 공지를 빼먹었던 탓에 연습이 원활이 진행되지는 못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시파티 다음 날부터 연습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트레이닝 기간은 2주로 잡았습니다. 아마 캐스트를 경험한 연출이라면 어떤 트레이닝을 진행하는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만 어떤 활동을 진행할 때 해당 트레이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진행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단순한 마임이나 독백, A-B 상황극, 얼음-땀 트레이닝 등 많은 트레이닝 방법에는 각각 진행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가령 A-B 상황극은 주어진 짤막한 텍스트에서 가질 수 있는 당연한 의미가 아닌, 아예 다른 목적과 의도로 해당 텍스트를 사용할 수 있음을 캐스트에게 알리기 위해 진행하는 트레이닝입니다. (“사랑해”라는 대사가 A가 B를 사랑해서 하는 대사가 아닐 수도 있음) 세부 트레이닝 목록과 그 방법, 빈도는 조연출이 업로드한 조연출 일지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트레이닝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콘텐츠 고갈입니다. 최근 캐스트 경험이 있는 조연출의 힘을 빌려 최대한의 콘텐츠를 끌어올리시고, 2주간의 트레이닝 계획을 얼추 세워 놓는 것이 좋습니다. 트레이닝 콘텐츠가 고갈됐음을 캐스트가 알게 되면 캐스트의 흥미도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신경 써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체 트레이닝도 마찬가지로 목적을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신체 트레이닝이 단순하고 의미 없는 운동시간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캐스트들에게 잘 가르쳐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어쨌든 캐스트는 모든 동작과 행동이 관객에게 보여지는 사람이므로 내가 자기 자신의 몸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어야 연기를 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신체 트레이닝을 통해 내 몸을 쓰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고, 그로부터 얻는 체력 증진은 보너스라는 사실을 알리기 바랍니다. 다만 연출인 제가 신체 트레이닝에 굉장히 취약한 사람이라, ‘내가 못하는 것을 캐스트들에게 시킬 수 없다’는 생각으로 저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한 정도에서 진행했습니다. 간단한 스트레칭 뒤 스쿼트, 푸시-업, 레그 레이즈 등의 근력, 마지막 유연성 훈련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초반 1월까지의 연출과 조연출이 함께 스트레칭부터 유연성까지 진행했고, 2월 들어서는 캐장을 중심으로 4명이 자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오디션 결과는 오디션 진행 당일에 바로 발표했습니다. 기획팀과 연계해서 카드뉴스로 발표했습니다. 사실 남2 여2 배역이 정해져 있기에 오디션에서 자신이 원하는 배역을 골라서 연습하거나 요청하는 등의 활동은 불가능했고, 거의 비슷한 대사를 동일하게 보면서 캐스트가 가진 느낌을 봤습니다. 배역을 결정하는데 대사 소화력을 보기도 했지만, 캐스트가 가진 이미지나 잠재력이 해당 배역에 얼마나 어울릴 수 있는지 여부를 가장 핵심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연습 3주차에 테이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참여했던 어떤 공연보다 테이블 작업을 길게, 그리고 꼼꼼하게 했던 것으로 자평합니다. 배역이 적었고, 그만큼 전사가 확실히 잡혀 있어야 대본 분석 후 장면 연습에 들어갈 때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사가 너무 길고 복잡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장면 연습 때 도움이 된 부분을 절반 아래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전사를 짜 놓으면 나중에라도 다시 돌이켜보면서 캐릭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전사에 사로잡혀 더 창의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바라봅니다. 전사와 캐릭터 작업은 꼭 필요하지만, 그것을 과도하게 구체적이거나 지엽적으로 잡아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장면 연습을 계속 진행합니다. 사실 남자 배역중 ‘정원’ 배역이 극 후반 15분 가량 나오고, 중간 ‘노인’, ‘배달원’, ‘집행자’로 나오는 멀티 배역이기에 장면연습 시 시간 조정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특히나 후반 장면은 연습 중반 이후에나 첫 연습에 들어가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정원을 맡은 캐스트가 연습에 군말 없이 성실하게 참여해줘서 감사했습니다.

겨울 대공연은 보통 설 연휴기간을 끼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공연진 전체 MT를 제외한 공연진끼리의 돈독한 시간을 갖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계속 동방에서 연습을 진행하면 몸도 마음도 지치기 때문에 가끔씩이라도 레퍼런스 찾기 명목으로 나들이를 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공연의 경우 동작 국립현충원에 다녀왔었고, 공연 내용과 비슷한 점이 있는 파묘를 개봉 직후 보러 갔습니다. 이런 외부 활동은 조연출과 함께 기획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설 연휴 기간에 캐스트들에게 휴가를 당초 계획보다 조금 길게 췄습니다.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이왕 쉬는 거 폭 쉬고 오라는 의미였고, 캐스트 외에도 연출과 조연출도 폭 쉴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다만 많은 연습 시간이 뺏기는 건 많이 아쉬운 일이었고, 그에 따라 풀 런 연습 기간을 이틀정도

늘려서 진행했습니다.

공연 날짜가 개강 이후로 잡히다 보니, 마지막 런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이 애매했습니다. 시연회 날 치러지는 철야 연습이 실질적인 마지막 정기 연습인데, 캐스트의 체력적 문제로 연습의 효율성이 조금 떨어졌던 것 같아 아쉽습니다.

캐스트 연습을 전체적으로 돌이켜봤을 때 가장 아쉬운 것은 캐스트의 발성 훈련과 목표 훈련이 미흡했다는 점입니다. 먼저 발성은 초반 트레이닝 과정에서 캐스트들에게 자신이 생각했을 때 가장 편한 발성법을 찾아보라고 전달했습니다. 중간에 선배님께 발성에 관한 조언을 여쭙기도 했는데, 소극장 수준에서는 어마어마한 수준의 발성 훈련은 불필요할 수 있고 말이 들릴 정도의 발성이면 충분하다는 말을 들었고 저도 그 사실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캐스트들이 가진 본연의 발성과 에너지가 너무 낮은 이유인지, 장면을 만들고 런을 돌릴 때까지 제대로 발성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트레이닝 단계에서 조금 체계적으로 만들어 갔으면 조금이나마 나아지지 않았을까 싶어 아쉽습니다.

장면의 기본은 각 장면 안에서 각 인물이 가진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고자 하는 과정을 보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트리거없이 단순히 인물의 전사와 상황만 대입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인물이 어떤 장면에서 취하는 전략이 매번 같은 경우가 많았고, 그것이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문제점이 되지 않았나 되돌아봅니다. 공연 막바지로 오면서 캐스트들에게 강조했던 부분이 ‘발성’, ‘목표’, ‘템포’입니다. 이 세 개의 요소를 늘 생각하면서 장면을 만들면 훨씬 더 재미있고 알찬 장면들이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5. 기술

[조명] 이재욱 조명팀장은 본 공연 이전에 조명팀을 몇 번씩 맡은 경험이 있어 믿고 맡긴 부분이 있습니다. 무대 디자인 초반에 조명팀에게 1막에 비해 2막과 3막은 차가운 블루 계열의 빛이 있어야 한다고 전달한 바가 있는데, 극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퍼널을 이용해 제가 원했던 빛을 표현해줘서 좋았습니다. 퍼널이 상당히 많이 사용됐는데, 조명팀장이 손수 중고 퍼널을 당근해와 충당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만 조도가 너무 강했는지 젤라틴의 수명이 하루만에 다하는 일이 있었는데, 젤라틴을 충분히 더 비축해두는 덕분에 무사히 공연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또 조명팀장이 배워온 새로운 조명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장면 별로 설계해둔 조명의 조도와 디자인된 모습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고, 앞으로도 해당 프로그램을 적극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무대] 이번 공연 가장 고생한 부서 중 하나입니다. 우선 극 특성상 1막과 2/3막의 배경이 완전히 다른데,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 이중 벽을 제안했고, 바퀴가 달린 벽을 움직이는 방식의 무대 전환을 구상했습니다. 또한 무덤을 실제로 만들어달라는 연출의 요구에도 묵묵히 만들어준 무대팀께 감사드립니다.

1막 벽 무대 디자인 공유 과정에서 무대팀의 초반 구상과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었는데도 이 사항을 늦게 발견해 조율이 조금 늦었습니다. 벽을 여유롭게 제작해 뒤 무대 구성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연출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무대 디자인 과정을 확인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 같아 아쉽습니다.

또한 1막과 2막 간 무대 전환 방법을 무대 설치 과정에서 확정지은 것도 실책입니다. 당초 계획은 암전한 뒤 1막 벽을 하수 쪽 커튼 뒤로 옮길 생각이었는데,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자가 벽을 옮기는 컨셉으로 조명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벽을 넣는 것으로 잡았는데, 그 과정에서 없던 독백을 새로 만들고 무대팀 상주 인원 몇 명을 백스테이지에 대기시키는 등 혼란과 고생이 많았을 것입니다. 무대 전환 방식을 보다 현실적으로 미리 구상했다라면 무대 설치 과정에서 혼란이 적고 시간을 적게 들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연출의 요구에 묵묵하게 무대 설치 작업과 무대 전환 수 역할을 수행해준 무대팀장과 무대팀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음향] 〈친절한 식구들〉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음향은 효과음이었습니다. 효과음이 장면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알맞은 효과음 찾기가 힘들었을텐데, 대체 어떻게 찾았는지 모를 찰떡인 음향을 찾아와주신 음향팀장과 팀원께 감사드립니다. 특히나 음향을 컷으로 쏘지 페이드로 쏘지 고민이 많았고 상당히 우유부단했는데, 매번 하나하나 고생하며 작업해주셨던 음향팀장이 고생이 참 많았습니다.

현장음을 쏘지 효과음을 쏘지 애매한 부분들도 있었고 이를 한번에 정리하는 것이 초반에 어려웠는데, 음향팀 회의 과정에서 엑셀로 정리해줘서 좋았습니다. 연출진에서 원했던 음향과 불필요한 음향 요소를 정리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공연 주간 뒷깢이 도중 디머 이슈인지 소리의 볼륨이 제각각인 경우가 있었는데, 음향팀에 때에 따른 알맞은 훌륭한 대처로 잘 해결해 줬던 음향팀에게 감사합니다.

[의소분] 자잘한 소품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많은 부분 실제 소품을 활용한 점이 좋았습니다. 동묘를 가거나 갖은 인터넷 주문으로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소품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다만 의상 결정이 공연 직전까지 정해지지 못했는데(특히 노인 모자, 집행자 의상 관련), 연출진이 의연케 방을 자주 활용하지 못한 데다 솔직히 조금 잊고 있었던 이유가 큼니다.

연출진이 조금 더 신경 썼더라면 급하게 준비하지는 않았을 텐데 연출진의 실책이 죄송스럽습니다. 최소한 일주일 전까지는 의상과 분장에 대해 확정을 지어놓고 무대 설치에 들어가는 것이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의소분팀 특성상 참관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텐데, 다른 기술팀만큼 많이 방문해서 캐스트 의상에 신경 써 주신 의소분팀장과 팀원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

[기획] 선배님들과의 교류가 다시금 많아진 공연인 것 같습니다. 지금껏 뵈던 다른 선배보다 더 높은 기수의 선배님들이 찾아오신 경우가 많았는데, 선배님들께 이번 공연에 대해 알리고 공연장에서 잘 맞아주셔서 좋았습니다. 이번 공연 진행 중 기획팀 관할 부분에서는 매끄럽지 않았던 부분이 아예 없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완벽하게 진행됐다고 생각됩니다. 외부 극장을 대관하는 공연이고, 학기가 새로 시작되는 봄이라 다른 일을 하느라 바빴을텐데도 공연이 원활히 이뤄지는 데 도움 주신 기획팀께 감사드립니다.

6. 공연 직전

연출이 가장 예민해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두 달간 계속된 회의와 연습으로 몸은 지쳤고, 예정된 계획대로 차근차근 진행되지 않는 것 같을 때 연출은 불안하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나 문제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하는 사람은 결국 연출이므로, 냉정하고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스태프들도 스태프 나름의 업무가 쌓여있을 것이기에, 연출이 본인의 힘들을 다른 스태프들이 알아주기를 원해서는 안 됩니다. 스태프 모두가 무대 설치, 오퍼 점검 중 당신의 생각과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스텝이나 배우들 모두 프로가 아니므로 설치나 뒷깢이, 리허설 모든 과정에서 완벽할 수 없습니다. 몇 가지 실수하거나 놓치더라도, 연출 본인이 직접 했더라도 충분히 했을 법한 실수라고 생각하시고, 사소한 부분에도 칭찬하고 잘할 수 있다고 독려하시기 바랍니다. 굳이 말하지 않았어도 될 불필요한 말이 서로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모두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공연 준비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7. 공연 당일

아무래도 가장 불안하고 떨리는 사람은 캐스트겠지만, 연출도 그에 못지 않을 것입니다. 리허설을 마치고 피드백을 준 뒤 소품을 최종 점검하고 파이팅콜까지 마치면, 연출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저 공연을 보고 다음 공연을 위한 피드백을 준비하는 것 뿐입니다. 돌이켜보면 첫 번째 공연 때 연출인 제가 더 떨었던 것 같은데, 조금 더 마음 편하게 볼 걸 그랬나 싶습니다.

공연 회차를 거듭하면서 바뀌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음향의 볼륨이나, 조명의 에어리어가 그렇습니다. 아마 음향이나 조명팀장이 공연 당일 상주해 지켜보겠지만, 연출도 관련해서 변화를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벽이나 무대 장치가 엄청나게 견고하지 않은 이상, 5회차에서 7회차까지 보내면서 보수가 필요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항상 공연이 시작하기 전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기 바랍니다.

8. 공연을 끝내고

어떤 공연이든 아쉬움이 남지 않는 공연은 없을 것입니다. 이번 공연도 그렇습니다. 미리 알았다면 좋았을 것들, 방향을 다르게 가져가도 괜찮았을 것들, 더 공들여서 만들 수 있었을 것 같았을 것들이 남습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해 모두가 최선을 다했던 공연이고, 모두가 재미있게 공연을 마무리한 것 같아 다행입니다. 연보에 <친절한 식구들>이 무사히 올라갔듯이, 이 글을 보고 있을 후배님의 공연도 최선을 다해 준비하시고 아름답게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